

# ‘광주여성사 체험길’ 흥미진진 90분

광주여성가족재단 ‘두훙길’ 재개  
하반기 ‘홍단심길’ 시범 운영  
어록 필사·체험 프로그램 도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시범 운영한 '광주여성사 체험길' 투어 모습.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여성사 체험길’을 아시나요?  
독일 출신의 남장로 교회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은 광주에 와서 서서평(1880~1934)이 됐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한국 근대여성 교육의 씨를 뿌려 수많은 여성의 자립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사회장이었다.

‘두훙’은 서서평 선교사가 유산으로 남긴 보리밭 두훙을 상징한다. 또 그의 헌신적인 삶을 기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지난해 광주여성사 체험로드 ‘두훙길’을 개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여성역사를 기반으로 도보투어를 진행중인 재단은 하반기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여성사 관점으로 구성한 ‘홍단심길’ 코스를 개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를 걷는 광주여성사체험길은 서서평과 호남 최초의 여의사인 현덕신 등 두훙길 속 여성인물과 역사적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코스와 시나리오를 재검토했다.

운영 코스는 근대여성사교육과 여성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훙길’, 3월 10일 만세운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알 수 있는 ‘백단심길’ 2코스로 구성돼 있다. 코스별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매일 오전 10시~오후 2시 두 차례 진행된다.

올해는 풍성한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3, 4월 투어에서는 역사 속 광주여성과 현재의 광주여성을 연결하는 의미로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양림동 문화공간에서 광주여성인물 어록 필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학

기간인 8월에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또 지역 여성작가들과 결합해 여성들의 주체성을 부각한 광주 여성 인물들의 일러스트 엽서를 투어 기념품으로 제작중이다.

투어는 온라인 링크(<https://forms.gle/rKrKhrs3TdsEnUdu9>)와 유선전화(062-670-0562)로 신청할 수 있으며 투어를 원하는 날 2일 전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KBS 주말극 명성 어디로...

‘삼남매가 용감하게’ 시청률 27.5% 종영...두작품 연속 30% 못넘겨



KBS 2TV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사진)’가 시청률 30%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된 ‘삼남매가 용감하게’ 최종회인 51회는 27.5%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시청률은 47회 28.0%다.

최종회에서는 가족을 위해 늘 양보해야 했던 K-장녀 김태주(이하나 분)와 톱스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K-장남 이상준(임주환)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삼남매 중 둘째인 김소림(김소은)은 12살 연상의 미혼부인 화장품 회사 대표 신무영(김승수)도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결실을 보았다. 셋째 김건우(이유진)의 아이를 가진 장현정(왕빛나)도 무사히 딸을 출산하며 삼 남매에게 행복이 찾아왔다.

해피엔딩으로 막 채운 결말에도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 기억 상실 등 주말극의 클리셰가 반복된 데다, 이야기 전개가 늘어지면서 슝슝함을 남겼다. 이때문에 지난해 9월 20.5%로 출발한 시청률은 드라마 초반 16.7%까지 떨어졌고, 끝내 30% 벽을 넘지 못했다.

KBS 주말극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시청률 보증수표’로 불리며 30~40%대 시청률을 유지해왔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0년대에는 ‘내 딸 서영이’(2012~2013) 47.6%, ‘왕가네 식구들’(2013~2014) 48.3%, ‘하나뿐인 내편’(2018~2019) 49.4% 등 자체 최고 시청률이 50%대에 육박한 드라마가 나왔지만, 2020년대에는 40% 벽조차 넘지 못했다.

2020년대 시청률을 보면 ‘한 번 다녀왔습니다’(2020) 37.0%, ‘오! 삼광빌라!’(2020~2021) 33.7%, ‘오케이 광자매’(2021) 32.6% 등으로 점점 하락했고, 히트작인 ‘신사와 아가씨’(2021~2022)도 38.2%로 40%를 넘지 못했다.

이후 방영된 ‘현재는 아름다워’(2022)는 29.4%로 30%대 벽마저 무너졌고, 그 후속작인 ‘삼남매가 용감하게’는 28.0%로 더 떨어졌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후속작으로는 이달 25일부터 ‘진짜가 나타났다!’가 방송된다. 미혼모와 비혼남의 가짜 계약 로맨스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다루며,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스튜어디스 최해정으로 나온 차주영의 차기작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 초저녁 마실 나가듯 듣는 ‘인문학’

동구, 29일~7월 12일 인문대학  
문학·예술·철학·심리 등 14강  
무료 진행...누리집·앱에서 신청

사진, 인구, 문학, 역사, 별, 철학, 행복, 사랑... 언급한 어휘들은 인문학과 관련 중요하게 언급되는 키워드들이다. 평소에는 그것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간과하다가도 문득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매년 인문학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광주시 동구가 올해도 인문대학을 연다. 올해 주제는 ‘밤마실 인문학’.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함께 나누는 밤마실 인문학’은 초저녁에 마실 나가듯 참석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매주 수요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인문대학 강좌를 연다. 모두 14강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인문대학은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인문학의 묘미와 의미를 풀어낼 예정이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동구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두드림’, 전화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먼저 오는 29일과 4월 5일 1·2강 강좌는 신미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사진은 감동이다-나눔과



성진기 교수

정지아 작가

행복’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3강(4월 12일) 박경숙 서울대 교수가 ‘인구, 가족, 삶의 전환’을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얘기한다. 같은 달 19일에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저자인 정지아 작가가 ‘공계 사람이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5강(4월 26일)은 이동순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역사 인물로 배우는 광주정신’을, 6강(5월 10일)은 정우철 도슨트가 ‘클로드 모네 인생의 빛을 그리다’를 강연한다.

5·18항쟁을 모티브로 한 강연도 마련돼 있다. 5월 17일 7강의 주제는 ‘스물다섯 경상도 대학생이 본 5·18항쟁’. 송필경(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장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 8강(5월 24일)은 최완공 광주장애인인권센터장이 ‘신기술 환경이과 노동의 미래 노동인권’을 강의하고, 9강(5월 31일)은 이명현 전문학자가 ‘별을 본다는 것’을 모티브로 강의를 연다.

신도현 작가는 ‘말의 내공을 기르는 인문학적 방법’(10강, 6월 14일)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김장현(사)한반도평화와변영을위한협력력 대표는 ‘엄혹한 한반도 정세와 우리 민족의 과제’(11강, 6월 21일)을 주제로 강연한다.

행복을 주제로 한 강연도 마련돼 있다. 김태형 사회심리학자는 ‘가짜 행복 원하는 사회’(12강, 6월 28일)를 매개로 오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이어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대표는 ‘성평등의 새로운 시선’(13강, 7월 5일)을,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14강, 7월 12일)를 강연한다.

문학, 예술, 철학,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

한편 동구청 관계자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강좌가 시민들로 하여금 인문정신과 인문학 소양을 고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특히 밤 시간대에 강좌를 개설해 직장인들도 자유롭게 강좌를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문의 062-608-221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강호동·이승기 12년 만에 MC 호흡

SBS 토크 예능 ‘강심장리그’

방송인 강호동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2년 만에 공동 MC로 호흡을 맞춘다.

SBS는 새롭게 선보이는 토크 예능 ‘강심장리그’(가제) MC로 강호동과 이승기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이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 맡은 건 2011년 예능 ‘강심장’이 마지막이었다.

‘강심장’은 게스트의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는 토크 예능으로 당시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강호동

이승기

새롭게 돌아오는 ‘강심장리그’는 오는 5월 방송된다.

/연합뉴스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http://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